



www.akht.or.kr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지각된 행동통제를 포함한 계획행동모형의 국제관광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valid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cluding perceived behavior control to the international tourism study

방희원* · 김민주**

Bang, Hee-Won · Kim, Min-Joo

* (주)플랜이슈 대리, hee1tour@naver.com, 관심분야: 관광 개발, 여가 행태

**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kminjoo1@hanmail.net, 관심분야: 감정노동, 여가 행태(교신저자)

요약

이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이 국제관광 활동에도 적용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어떤 유형의 관광행태에서 보다 나은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변수들이 관광행위의 난이도에 따라서 행동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국제관광을 단체관광, 개별 관광, 나홀로 관광으로 구분하였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를 상황변수와 분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난이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더 큰 설명력을 지님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계획행동이론이 보편적인 관광행태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계획행동이론이 제안하고 있는 선행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영향력의 강도는 국제관광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태도의 경우 모든 유형의 국제관광에서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의 경우에는 단체관광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관광과 나홀로 관광에서만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단체관광보다는 여행 중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나홀로 관광에서 더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거 경험의 영향도 단체관광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각된 행동통제의 수준이 관광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핵심용어

계획행동이론,
국제관광,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wheth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i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ourism activities and identify which types of international tourism are better explained. Through theoretical speculation of reference, international tourism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Package tour, FIT, Traveling Alone) based on the difficulty of tour behavior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antecedent variables and also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used separately from situation variables. Through this study, we wanted to confirm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ifficulty, the greater the ability to explain, and suggest tha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s also applicable to tourism behavior. Results of data analyses showed that the antecedent variables of TPB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but the strengths of the influence was different by tour types. While attitude had a greatest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in all types, subjective norm was more influential in package tour than other type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in only FIT and traveling alone. It showed that TPB explained traveling alone, requires self-determination and self-confidence, better than package tour which is relatively easy to do. The effects of past experience on behavioral intention were also found significant but the smallest in package tour. Through additional analysis it was fou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varied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WORDS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touris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ehavioral intention

ACCEPTANCE INFO.

2020.05.19. 원고접수
2020.06.10. 1차 수정본 접수
2020.06.22. 2차 수정본 접수
2020.06.23. 최종수정본 접수
2020.06.29.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방희원(2018)의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계획행동이론은 사회과학의 오랜 논제 중 하나인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관점이다. 이 이론은 행위의사의 선행변수로서 태도 외의 추가변수를 가정함으로써 행위의사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으며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인터넷 도박, 외식행동, 다이어트, 금연, 친환경 행동 등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곽선혜 · 정의철, 2015; 문일봉, 2017; Hagger et al., 2018; Procter et al., 2019; Untaru et al., 2016).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확장된 이론이다. Fishbein & Ajzen(1975)은 기존 태도-행동 모형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사고 과정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제시한 바 있다(Ajzen, 1991).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이 어떤 행동에 앞서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며 의사결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매개변수인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반응(태도) 그리고 중요한 지인들이 특정 행동에 행사하는 기대와 압력에 대한 개인적 지각(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태도의 개념을 자주 사용한 반면 사회와 집단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사회적 규범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는데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사회적 규범 요소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간행동 연구에 관한 두 개념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박희서 등, 2007).

그러나 Ajzen(1991)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인 경우에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는 개인의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행동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개념을 선행변수에 추가한 계획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심리학의 자기 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즉 해당 행동을 통제하기 쉽거나 어렵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뜻한다.

계획행동모형은 여가·관광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교적 자주 활용되었다. 여가활동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모형 개발자인 Ajzen & Driver(1992)에 의하여 일찍이 수행되었는데, Ajzen & Driver(1992)는 5가지의 여가활동(해변에서 시간보내기, 조깅, 등산, 보트타기, 자전거타기)을 대상으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관광분야에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국내 선행 연구들의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축제 방문객(이덕순 · 한호성, 2016; 이현종 · 오민재, 2016; 이후석 · 오민재, 2016),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행동(서영환 등, 2015; 조한범 등, 2017), 테마파크 방문객(김홍렬 등, 2010), 공정관광(박주연, 2015)이나 책임관광(최영정, 2009) 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관광에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인 관광행동에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외 연구(Han et al., 2010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관광은 즐거움을 얻을 기대감에서 일상 생활권을 이탈하여 자원 매력성을 지닌 관광목적지를 방문한 후 귀환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관광은 관광목적지에 따라서 크게 국내 관광과 국제관광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인 관광행동 연구에서 계획행동모형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경향의 배경을 추론하자면 관광행동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각된 행동통제 등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가 행동의도의 선행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획행동이론이 관광행동 연구보다는 주로 여가 연구에서 활용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여가·관광분야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내적 통제능력이 아닌 외적 장애요인이나 여건과 같은 상황변수로 대체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도 관광활동 자체가 제약요인만 없다면 비교적 수행하기 쉬운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대한 내적인 통제능력과 외적인 장애요인 모두를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Cooke et al., 2007),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적 통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의 관광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관광유형 별로 내적 통제력의 상대적 중요성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 행동 연구에서도 상황변수와 더불어 내적 통제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고 있는 여가·관광분야의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를 개선하고 계획행동이론을 통하여 보편적인 관광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즉 지각된 행동통제를 포함한 계획행동 모형이 적용 가능한 국제관광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관광행동을 난이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상황조건, 과거경험 등의 상대적 중요도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유형의 국제관광에서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체류경험, 외국어능력, 안전성향 등 행위자 특성에 따라 국제관광

유형별로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이 온전한 형태로 관광행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갈수록 세분화되는 국제관광시장의 잠재관광객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계획행동모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국제관광 참여의사의 영향요인에 대한 유형별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연구 및 연구가설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행동의 선행요인이라고 가정한 합리적 행동이론은 간명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개인의 의지나 이성으로 통제되는 행동에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행동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수정한 계획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용이성이나 어려움(perceived ease or difficulty)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선행변수를 추가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였다(Ajzen, 2002). 따라서 계획행동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의도(intention)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개인이 행동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회적 압력에 해당하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등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선행변수 중 하나인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계획행동이론이 다양한 활동에 적용가능하다는 점은 대체로 확인되고 있으며 세 가지 설명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검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획행동이론은 최근까지도 태도-행동연구에 있어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모델이지만 인간행동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Aarts et al., 1998).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Ajzen(1991)은 계획행동이론의 구성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력 증대를 위한 변형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Ajzen(1991)은 계획행동이론이 행동 의도나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하는 선행변수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계획행동이론 자체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 통제라는 선행변수를 추가하여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의도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변수에 새로운 변수의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PB)은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형태로 확대된 것이다(서해란 · 이충기, 2015; 이재석 · 이충기, 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환경 호텔 방문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Wu & Teng의 연구(2011)에서는 과거 행동을, 노인들의 카지노 방문의도를 분석한 Phillips(2009)의 연구에서는 동기를 각각 계획행동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스파 관광지 방문객의 행동의도를 분석한 Kim & Knutson의 연구(2010)에서는 기존변수에 과거경험과 정신적 건강을 추가한 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여가활동에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Miesen(2003)은 성인들의 독서 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 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 경험이 독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또 다른 연구 경향은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와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를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이덕순 · 한호성(2016)은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인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가 지각된 위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도 계획행동모형의 선행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조한범 등, 2017; Chen & Tung, 2014; Pannilage & Lin, 2016 등). 한편 육체노동의 작업환경에서 안전풍토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Fogarty와 Shaw(2010)의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선행 변수인 주관적 규범을 집단규범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를 노동 압력(외부 압력)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통제된 사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와 일탈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회규범을 의미하는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s)이나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인의 행동(prototype similarity)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이려는 연구(Branley & Covey, 2018; Demir et al., 2019)도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행동이론은 대상 행위에 적합한 선행 변수를 추가하거나 조절변수를 추출하려는 노력을

통한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행위별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 학술용어로 사용되는 태도는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김홍렬 외 2인, 2010; 류시영·김재호, 2015; 이현중·오민재, 2016; Phillips, 2009 등)에서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태도가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은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므로 관광이나 국제관광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국제관광에 대한 태도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외부 압력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행하려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으로서 주관적 규범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Ajzen & Driver, 1992). 실제로 스파 방문객의 행동의도를 분석한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싱글 여성의 해외여행 행동의도를 연구한 김민지·조민호(2017)의 연구에서는 타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혼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광 등 여가활동에 있어서 주관적 규범이 태도나 상황 조건보다 낮은 영향력을 갖는 변수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주관적 규범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행위 의도를 설명하는 영향변수로 검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가·관광 분야의 선행연구들(박주연, 2015; 유동숙, 2016; 임희랑·김학선, 2016)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내적 통제력이 아닌 상황 변수로 한정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황 변수를 지각된 행동통제와 분리하여 상황조건이라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황조건은 내용상으로 기존 여가분야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제약요인과 동일하며 개인이 이러한 제약요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국제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 여행비용, 기회 등의 확보 용이성을 의미한다. 기회, 시간, 경제적 자원 등의 상황변수를 지각된 행동통제로 변형하여 분석한 윤설민 등(2010), 임희랑·김학선(2016), 박주연(2015), 유동숙(2016) 등의 연구에서 상황조건은 모두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Ha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모든 선행변수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획행동이론이 합리적 행동이론보다 설명력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상황조건은 여러 연구들에서 행위의도를 설명하는 영향변수로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관적 규범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가장 낮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 태도, 주관적 규범, 상황조건은 국제관광 유형과 무관하게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관광행동 연구에서 계획행동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유는 관광행위 자체가 자기 효능감이나 통제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을 행동 수행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국제관광을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동반자와 함께 소집단 단위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개별 관광, 여행일정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나홀로 관광 등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선행연구(김은희, 2015; 최용훈, 2007)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제관광을 분류한다면 행위자가 체감하는 난이도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들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여행유형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가·관광 관련 계획행동 연구(박주연, 2015)와는 달리 상황변수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구분하였으며 과거경험을 선행 변수에 추가하였다. 여기서 상황변수는 여행에 필요한 여건, 기회, 시간, 비용 등의 획득 용이성을 의미하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본래의 의미대로 특정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능력, 의지, 자신감을 나타내는 내부 통제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상황 요인, 지각된 행동 통제, 과거 경험 등 5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계획행동모형에서는 보편적인 선행변수로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행동의도와 인과관계에서

보이는 상대적 강도는 행위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에 관해서는 Ajzen & Fishbein(2005)도 행위 속성에 따라서 각 선행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관광을 단체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 나홀로 국제관광으로 구분한다면 여행을 구성하는 정보탐색, 이동, 숙박 등 구체적인 활동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위험 지각수준이 높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존해야만 하는 관광유형일수록 지각된 행동통제 및 과거경험의 중요도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경험을 행위의도의 선행요인에 추가한 본 연구의 계획행동모형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관광행위인 나홀로 국제관광을 더 잘 설명할 것이다.

가설 2 : 본 연구의 모형은 단체 국제관광일 경우 가장 설명력이 낮고 나홀로 국제관광일 경우 가장 설명력이 높다.

지각된 행동통제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데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높다고 느끼면 행동의도가 높아진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내부통제력만을 나타내거나 내부통제력에 경제력이나 시간적 여유 등 상황적 요소를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측정되었다(박종희, 2007; 제미경 · 전향란, 2013; 임희랑 · 김학선, 2016 등). 이에 비하여 다수의 여가·관광연구(송학준 등, 2011 등)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제력, 여건, 시간 등의 외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다. 즉 지각된 행동통제가 원래 개념에서 일정 부분 이탈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전한 모형의 계획행동이론이 보편적인 관광행동의 성격을 띠는 국제관광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각된 행동통제의 개인 내재적 요인과 외부 상황요인을 구분하여 각각 지각된 행동통제와 상황조건으로 명명하였다.

극히 소수의 관광 분야 선행연구에서 내부 통제력을 중심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고 있는데, 폐철도 활용 관광지 방문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한 류시영 등의 연구(2015)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반면 모험성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가자의 행동지속 의도를 파악한 유선훈(201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지속 의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집단의 금연 의도를 대상으로 한 정재선(2013)의 연구, 다이어트 행동을 분석한 박선혜 · 정의철(2015)의 연구, 취업준비소비 행동의도를 밝힌 이기현 · 이은희(2015)의 연구 등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모험성 레크리에이션, 금연이나 다이어트, 취업준비와 같은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고난이도의 행동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은 제도화 측면에서 뿐 아니라 관광특징과 난이도에 따른 분류라고도 할 수 있다. 관광행동에서 난이도 차이는 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에서 기인하는 위험 지각 수준 및 효과적인 관광활동을 위한 현지 적응 능력의 필요성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개별 여행과 단체 여행을 비교 분석한 김은희(2015)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단체 여행에서는 안전함과 편리함이, 개별 여행에서는 현지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추출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은 여행상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적이다. 그러나 개별 국제관광은 동반자와 함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일정을 혼자서 계획 관리하는 나홀로 국제관광보다 위험지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여행의 난이도 역시 낮은 여행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동반자의 정서적 도움이나 여행사의 보호에 의지할 수 없는 나홀로 관광의 경우에는 강한 자신감 및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세 가지 국제관광 유형 중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나홀로 관광의 경우 개별 국제관광이나 단체 국제관광에 보다 지각된 행동통제의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단체 국제관광은 수동적 성격의 편안한 여행이므로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관련성은 작을 것이다.

가설 3 :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 가장 크고 단체 국제관광의 경우 가장 작다.

과거경험은 특정 행동을 사전에 행한 경험을 말하는데 과거경험이 미래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Ajzen, 2011). Ajzen(2002)에 따르면 과거행동은 계획행동이론의 기존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행동의도, 행동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여가·관광분야에서도 계획행동이론에 과거경험을 새로운 변수로 추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대학생의 대학 농구리그 관람의도를 분석한 양성진 등(2015)의 연구, 여가활동에 과거경험을 추가하여 대안모형을 탐색한 박진경(2011)의 연구에서도 과거행동을 추가한 모형이 기존의 계획행동이론보다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경험 또한 국제관광 유형에 따라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보탐색이나 관광지에서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개별 국제관광이나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 위험지각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단체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여행상품의 구매만으로 여행이 가능하므로 경험의 유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가설 4 : 과거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 국제관광의 경우 가장 작다.

III. 변수의 측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관광행동을 방문지와 방문동기가 좁은 범위로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광 형태로 보았으며 국제관광 행동도 비교적 다양한 경유지를 거치며 보편적인 관광욕구에 의하여 추동되는 일반적 양태의 국제관광 활동으로 전제하였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 국제관광 유형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으로서 각 국제관광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조작적 정의는 각 국제관광 유형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혹은 지지 수준이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각 국제관광유형으로 해외여행을 수행하려 할 때 행위자 본인이 지각하는 능력, 의지, 자신감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를 내부 통제력과 외부적 요인(상황조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상황조건은 해외여행에 필수적인 시간, 돈, 기회 등의 조건 및 자원의 획득 용이성에 대한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행동 의도는 유형 별 국제관광에 참여할 구체적인 계획 수준 및 주관적인 실행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측정변수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문항과 척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과거경험은 각 유형의 국제관광을 경험한 횟수로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는데 측정문항은 경험 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연령의 내국인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의 국제관광에 공히 참여 가능한 만 18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 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인 편의추출방법에 의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9월 1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SNS에 설문지의 게시 글을 올리고 설문조사 관련 키워드를 해시 태그(hash-tag)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학교(수원 경기대학교), 시장(서울 동부시장), 체육관(서울 중랑구 수도관), 학원(서울 강서구 일프로학원), 교회(서울 강서구 성문교회), 회사(서울 중구 삼성화재), 서울시청 및 시청역 일대, 강남역 일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79부의 표본을 획득하여 전체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네 차례에 걸친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수거된 340부 중 미완성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329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408개의 유효 표본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측정척도 및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척도	선행연구 출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소득, 학력, 외국체류경험, 외국어능력, 안전성향	명목 및 서열척도	
단체 국제 관광 · 개별 국제 관광 ·	태도	나는 ___국제관광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태도-1) ___국제관광은 재미있다 (태도-2) ___국제관광은 매력적이다(태도-3) ___국제관광은 유익하다(태도-4)	5점 리커트척도	윤설민(2010), 박진경(2011), Ajzen(2002)
	주관적 규범	나의 가족은 ___국제관광을 바람직하다고 여긴다(규범-1) 나의 가족은 ___국제관광을 권장한다(규범-2) 나의 가족은 ___국제관광 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규범-3)		김흥렬 등(2010), 윤설민(2010), Ajzen(2002)

나홀로 국제 관광		내가 __국제관광을 한다면 나의 가족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규범-4)		
	지각된 행동 통제	__국제관광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통제-1) 나는 __국제관광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통제-2) 나는 __국제관광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통제-3) 내가 __국제관광을 하면서 당황하거나 난처할 일은 없을 것이다(통제-4)		김민지 · 조민호(2017), Sparks & Pan(2009)
	상황 조건	__국제관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상황-1) __국제관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상황-2) __국제관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상황-3) __국제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편이다(상황-4)		송학준 등(2011), 김보미 · 노정희(2013)
	행동 의도	3년 이내에 __국제관광을 할 생각이다(의도-1) __국제관광을 하기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의도-2) __국제관광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의도-3) __국제관광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의도-4) __국제관광을 반드시 할 생각이다(의도-5)		최영정(2009), 유동숙(2016), Ajzen(2002)
	과거경험	과거 국제관광을 경험한 정도	서열척도	양성진 등(2015), 차동필(2005)

IV. 데이터 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분포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대등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6.5%)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 원-400만 원이 가장 많았다(30.4%). 학력은 대졸 이하가 256명(62.7%)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체류경험의 경우 전혀 없음이 213명(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내 체류경험 있음 110명(27%), 1개월 이상 체류경험 있음이 85명(20.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은 약간 있는 편이 245명(60%)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는 편이 119명(29.2%), 잘 한다고 생각 44명(10.8%)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179명(43.9%)은 본인의 성향을 안정지향적인 편으로, 132명(32.3%)은 보통으로, 97명(23.8%)은 모험지향적인 편으로 응답하였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비율)
성별	남성 208(51%), 여성 200(49%)
연령	10대 15(3.7%), 20대149(36.5%), 30대103(25.2%), 40대 74(18.2%), 50대 59(14.4%), 60대 이상 8(2%)
학력	고졸 이하 46(11.3%), 전문대졸 이하 59(14.5%), 대졸 이하 256(62.7%), 대학원 이상 47(11.5%)
외국 체류경험	전혀 없음 213(52.2%), 1개월 이내 체류경험 110(27%), 1개월 이상 체류경험 85(20.8%)
외국어능력	전혀 없는 편 119(29.2%), 약간 있는 편 245(60%), 잘 한다고 생각 44(10.8%)
안전성향	안정지향적인 편 179(43.9%) 보통 132(32.3%), 모험지향적인 편 97(23.8%)

2. 측정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상황조건, 행동의도 등의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측정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적정 신뢰도 계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두 문항('패키지투어를 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 통제 1', '패키지투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상황 1')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국제관광에서도 부득이 이 두 문항을 제거한 후 개별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단체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		나홀로 국제관광	
	요인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누적분산설명력)	요인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누적분산설명력)	요인 적재치 (공통성)	고유값 (누적분산설명력)
태도-2	.878(.828)	4.879 (34.85%)	.906(.881)	5.362 (38.29%)	.891(.920)	6.646 (46.04%)
태도-3	.876(.820)		.887(.856)		.906(.907)	
태도-1	.831(.745)		.814(.713)		.833(.826)	
태도-4	.799(.711)		.868(.786)		.867(.876)	
규범-2	.846(.771)	2.422 (52.15%)	.854(.798)	2.429 (55.64%)	.833(.860)	2.226 (61.94%)
규범-3	.803(.758)		.841(.791)		.801(.745)	
규범-1	.744(.763)		.781(.684)		.826(.814)	
규범-4	.651(.597)		.761(.667)		.776(.760)	
상황-3	.922(.855)	1.630 (63.79%)	.903(.827)	1.610 (67.15%)	.921(.854)	1.749 (74.43%)
상황-4	.892(.812)		.867(.722)		.891(.821)	
상황-2	.859(.763)		.863(.671)		.886(.777)	
통제-3	.848(.723)	1.335 (73.3%)	.880(.862)	1.434 (77.39%)	.898(.889)	1.280 (83.57%)
통제-4	.781(.655)		.838(.799)		.880(.855)	
통제-2	.694(.551)		.770(.777)		.812(.796)	

단체 국제관광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태도 0.904, 주관적 규범 0.830, 지각된 행동통제 0.711, 상황조건 0.882, 행동의도 0.936이었고, 개별 국제관광은 태도 0.919, 주관적 규범 0.875, 지각된 행동통제 0.816, 상황조건 0.881, 행동의도 0.918로 분석되었으며, 나홀로 국제관광은 태도 0.954, 주관적 규범 0.907, 지각된 행동통제 0.881, 상황조건 0.906, 행동의도 0.935로 나타났다. 단체 국제관광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다소 낮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으나(0.711),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신뢰도 계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변수들의 측정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주성분 분석에 의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회전은 직교회전인 VARIMAX에 의하였다. 요인 추출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각 국제관광 유형별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단체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 나홀로 국제관광 모두에서 동일한 요인행렬 패턴을 보였으며 공히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와 상황조건을 혼용하여 사용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상황조건을 별도의 변수로 처리하였는데 두 변수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변수로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이 연구 설계 시의 의도와 같이 범주화되었으므로 1요인은 태도, 2요인은 주관적 규범, 3요인은 상황조건, 4요인은 지각된 행동통제로 각각 명명하였다. 측정변수 모두에서 요인 적재량이 0.6 이상이었으며 공통성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총 분산 설명력은 단체 국제관광 73.32%, 개별 국제관광 77.39%, 나홀로 국제관광 83.57%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의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국제관광 유형에서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두 0.8 이상의 요인적재량과 0.7 이상의 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단체 국제관광은 79.61%, 개별 국제관광은 75.44%, 나홀로 국제관광은 79.62%로 나타났다.

3. 가설의 검증

데이터 분석의 편의상 먼저 연구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입력 방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설 2의 검증 과정에서 입력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동일한 조건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국제관광 유형별 다중 회귀분석(입력 방식) 결과

종속변수	국제관광 유형	독립변수	B	β	t	R^2	F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행동의도	단체 국제관광	태도	.525	.415	9.148***	.421	58.504***	.700	1.429
		주관적 규범	.323	.236	5.133***			.684	1.462
		지각된 행동통제	.012	.008	.200			.832	1.202
		상황조건	.201	.183	4.612***			.916	1.092
		과거경험	.181	.086	2.148*			.897	1.115
	개별 국제관광	태도	.534	.377	9.522***	.515	85.403***	.769	1.300
		주관적 규범	.131	.111	2.625**			.669	1.495
		지각된 행동통제	.142	.128	3.288**			.799	1.252
		상황조건	.297	.283	7.451***			.834	1.200
		과거경험	.334	.167	4.324***			.811	1.234
	나홀로 국제관광	태도	.446	.416	9.761***	.585	112.969***	.571	1.750
		주관적 규범	.142	.123	2.946**			.598	1.671
		지각된 행동통제	.273	.242	6.338***			.712	1.405
		상황조건	.160	.144	4.185***			.877	1.140
		과거경험	.288	.129	3.576***			.799	1.252

* $p < 0.05$, ** $p < 0.01$, *** $p < 0.001$

단체 국제관광의 모형 설명력은 42.1%, 개별 국제관광의 모형 설명력은 51.5%, 나홀로 국제관광의 모형 설명력은 58.5%로서, 나홀로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 단체 국제관광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단체 국제관광일 경우 가장 설명력이 낮고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은 채택되었다.

<표 5>는 국제관광 유형별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도, 주관적 규범, 상황조건은 모든 국제관광 유형에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국제관광 유형별로 태도, 주관적 규범, 상황조건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단체 국제관광의 경우 태도, 주관적 규범, 상황조건의 순서로 영향력이 높았고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 태도, 상황조건, 주관적 규범의 순서로 영향력이 높았다. 태도의 영향력은 모든 국제관광 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 두 유형에서만 가장 작게 나타났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의 두 유형에서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단체 국제관광에서는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여행상품의 구매만으로 국제관광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개별 국제관광에서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0.128, 나홀로 국제관광에서는 0.242로 나타나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별 국제관광보다 나홀로 국제관광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또한 과거 경험은 모든 국제관광 유형에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과거경험의 영향력 수준은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개별 국제관광($\beta = .167$), 나홀로 국제관광($\beta = .129$), 단체 국제관광($\beta = .088$)의 순으로 개별 국제관광에서 가장 크고 단체 국제관광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동의 난이도가 낮아 수행이 용이할수록 과거 경험이 행동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5〉 국제관광 유형별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국제관광 유형	독립변수	B	β	t	R ²	F
행동의도	단체 국제관광	태도	.527	.416	9.249***	.421	73.294***
		주관적 규범	.325	.237	5.226***		
		상황조건	.202	.184	4.698***		
		과거경험	.185	.088	2.259*		
	개별 국제관광	태도	.534	.377	9.522***	.515	85.403***
		상황조건	.297	.283	7.451***		
		과거경험	.334	.167	4.324***		
		지각된 행동통제	.142	.128	3.288**		
		주관적 규범	.131	.111	2.625**		
	나홀로 국제관광	태도	.446	.416	9.761***	.585	112.969***
		지각된 행동통제	.273	.242	6.335***		
		상황조건	.160	.144	4.185***		
		과거경험	.288	.129	3.576***		
		주관적 규범	.142	.123	2.946**		

* $p < 0.05$, ** $p < 0.01$, *** $p < 0.001$

4. 지각된 행동통제(PBC)에 관한 심층 분석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변수는 지각된 행동통제(PBC)이다. 가설 검증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 가설들이 지지되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와 배경은 주로 국제관광 유형별로 지각된 행동통제의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각된 행동통제(PBC)의 영향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주로 지각된 행동통제의 선행변수를 추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경험, 외국 체류경험, 외국어 능력, 안전성향 등 국제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요인들을 기준으로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국제관광 유형마다 과거경험 유무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단체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 나홀로 국제관광 모두에서 과거경험 유무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의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과거경험 유무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 평균 차이(독립표본 t검정)

구분	평균		t	p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단체 국제관광 PBC	3.73(n=262)	3.34(n=146)	5.648	.000
개별 국제관광 PBC	2.91(n=276)	2.37(n=132)	6.449	.000
나홀로 국제관광 PBC	2.94(n=135)	2.16(n=272)	8.466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각 국제관광 유형에서 외국체류경험, 외국어능력, 안전성향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PBC)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단체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 나홀로 국제관광의 모든 유형에서 외국체류 경험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단체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체류 집단이 전혀 없는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PBC를 보였으며 개별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체류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PBC 차이가 나타났고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PBC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외국체류경험, 외국어 능력, 안전 성향에 따른 PBC 차이(One-way ANOVA)

구분	외국체류경험에 따른 집단별 PBC 평균	F-value	사후 검증 (Duncan)
단체 국제관광	없음 3.52, 1개월 미만 3.62, 1개월 이상 3.75	3.153*	없음 < 1개월 이상
개별 국제관광	없음 2.53, 1개월 미만 2.95, 1개월 이상 2.97	13.602***	없음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나홀로 국제관광	없음 2.18, 1개월 미만 2.55, 1개월 이상 2.86	19.077***	없음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구분	외국어능력에 따른 집단별 PBC 평균	F-value	사후검증 (Duncan)
단체 국제관광	낮은 집단 3.60, 중간 집단 3.58, 높은 집단 3.68	0.388	-
개별 국제관광	낮은 집단 2.42, 중간 집단 2.83, 높은 집단 3.09	14.413***	하 < 중 < 상
나홀로 국제관광	낮은 집단 2.05, 중간 집단 2.48, 높은 집단 3.10	23.828***	하 < 중 < 상
구분	안전성향에 따른 집단별 PBC 평균	F-value	사후 검증 (Duncan)
단체 국제관광	안전지향 3.51, 보통 3.48, 모험지향 3.72	3.457*	안전지향 = 보통 < 모험지향
개별 국제관광	안전지향 2.51, 보통 2.68, 모험지향 2.95	12.182***	안전지향 = 보통 < 모험지향
나홀로 국제관광	안전지향 2.14, 보통 2.47, 모험지향 2.87	21.530***	안전지향 < 보통 < 모험지향

* $p < 0.05$, *** $p < 0.001$

국제관광 유형별로 외국어 능력(전혀 없는 편, 약간 있는 편, 잘 한다고 생각)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PBC)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의 두 유형에서만 외국어 능력에 따라 PBC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단체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외국어 능력에 따른 집단별 PBC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분석 결과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 모두에서 외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PBC도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안전성향(안전지향, 보통, 모험지향)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PBC)의 차이를 검증한 분석에서는 단체 국제관광,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 모두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검증되었다. 사후 검증에서는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 모든 집단 간 평균차이가 검증되었으며 모험지향적일수록 PBC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개별 국제관광과 단체 국제관광에서는 모험지향적인 집단의 PBC가 다른 집단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행동 수행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국제관광유형에서 안전지향성 수준에 따른 PBC 차이가 명료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여가·관광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축제나 이벤트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관광행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여가·관광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여건을 나타내는 상황변수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내부 통제력을 의미하는 원래 의미의 변수로 사용하고 외부 조건을 나타내는 상황변수를 상황조건이라는 별도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획행동이론이 보편적인 관광행동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어떤 유형의 관광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일반적인 관광행위에도 계획행동이론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개별 국제관광과 나홀로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상황조건, 과거 경험 등 모든 선행변수가 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 가설 4 지지). 이에 비하여 단체 국제관광에서는 선행변수 중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만이 검증되지 않았다(가설 3 지지).

그러나 개별·나홀로 국제관광의 분석 결과는 주관적 규범이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윤설민, 2012; 이후석·오민재, 2016)들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계획행동이론의 선행변수 중 주관적 규범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개별·나홀로 국제관광보다 단체 국제관광에서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인과 함께하는 여행은 주관적 규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혼자 하는 여행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김민지 · 조민호(2017)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은 혼자 수행하는 행동보다 타인과 함께하는 행동일 경우 영향력이 증가하므로 관광활동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가 동반자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의 범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관광활동에서의 태도와 행동 간 관계도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계획행동모형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관광유형 별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는데 난이도 지각 수준이 높은 유형의 관광에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계획행동모형은 단체 국제관광보다 나홀로 국제관광을 더 잘 설명하였다(가설2 지지).

이러한 분석 결과는 관광을 유형화할 경우 계획행동이론이 난이도 지각 수준이 높은 유형을 더 잘 설명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사전 가정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즉 난이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에 대한 내적 통제력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는 단체 국제관광에서는 행동의도와와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개별·나홀로 국제관광에서는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며, 개별 국제관광보다 나홀로 국제관광에서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3 지지).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금연, 다이어트, 취업준비 등 행위자의 의지와 노력,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활동의 행동의도에 지각된 행동통제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곽선희 · 정의철, 2015; 이기현 · 이은희, 2015; 정재선, 2013)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과거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 국제관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추가 분석을 통하여 각 국제관광 유형에서 행위자 특성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PBC)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제관광 유형에 관계없이 지각된 행동통제는 과거경험, 연령, 외국체류경험, 외국어능력, 여행선호정도, 안전성향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경험이 많을수록 외국체류 경험이 있을수록 외국어 능력이 우월할수록 여행선호도가 높고 모험지향적인 성향일수록 지각된 행동통제(PBC)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 특성별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의 평균 차이 검증에 대한 분석결과 전반에서 행위자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 차이는 난이도가 높은 여행 유형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원래 모형으로도 국제관광 현상을 부분적인 설명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면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안하는 실용적 시사점은 비교적 작지만 여행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단체관광의 경우 시장세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개별 국제관광의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기준으로 좀 더 세심한 표적시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데 우선 종속변수를 실제 관광행동이 아닌 행동의도로 한정하였다. Ajzen(1991)의 계획행동 모형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도를 거쳐 영향을 준다. 하지만 행동의도와 행동 사이에는 또 다른 상황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의 유형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국제관광이라도 관광목적지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행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단체 국제관광이라도 행선지가 테러, 도난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곳이거나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은 오지일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과거 경험이 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일반적인 관광행동에 적용했다는 점, 국제관광을 유형화하여 행동의도에 대한 선행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했다는 점, 지각된 행동통제와 상황변수를 나누어 분석에 사용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선희 · 정의철(2015). 다이어트 행동의 이해-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4), 5-56.
 김민지 · 조민호(2017).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싱글여성의 해외여행 행동의도 연구. *관광레저연구*, 29(3), 57-76.
 김보미 · 노정희(2013).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학습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획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37(4), 257-280.
 김은희(2015).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비교 분석.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흥렬 · 이태희 · 윤설민(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테마파크 방문에 대한 행동의도 연구: 즐거움의 역할 탐색. *관광연구저널* 24(2), 5-23.
- 류시영 · 김재호(2015). 폐철도 활용 관광시설 이용자의 재방문 행동 이해 - 계획행동이론의 확장. *관광레저연구*, 27(4), 5-21.
- 문일봉(2017). 미디어 이용 및 채택행동에 적용된 계획행동이론(TPB)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희(2007).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치기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연(2015). 확장된 계획이론을 이용한 공정관광 의사결정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2011). 여가행동을 예측하는 모형 탐색 -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관광연구*, 26(4), 237-255.
- 박희서 · 노시평 · 김은희(2007).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2), 97-119.
- 서영환 · 문희 · 이지은 · 신진화 · 정혜진 · 김공(201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운동지속참여 예측 - 교양체육수업 참여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211-226.
- 서해란 · 이충기(201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중국관광객의 방한 의사결정 연구. *호텔관광연구*, 17(2), 1-16.
- 송학준 · 이충기 · 강수경(2011).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자연기반축제 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보령머드축제를 사례로. *제69회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983-995.
- 양성진 · 원도연 · 곽민석(2015). 대학생의 대학농구리그 관람의도에 대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 팀 동일시와 과거행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54(1), 285-301.
- 유동숙(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의 행동의도 연구 - 계획행동이론에 즐거움-각성차원을 매개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설민(2010).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통한 모험적 여가활동 추구 관광객의 행동지속성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 애착도, 과거행동의 역할탐색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설민(2012). 모험성 레크리에이션 추구 관광객의 행동지속의도 및 행동지속성에 관한 영향관계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4(1), 1-16.
- 윤설민 · 오선영 · 윤선정(2010).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내국인의 해외여행 의도에 관한 연구: 사전지식과 지각된 위험의 추가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9(6), 289-307.
- 이기현 · 이은희(2015). 대학생 소비자의 취업준비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는문집*, 247-247.
- 이덕순 · 한호성(2016).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축제방문객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지각된위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41(4), 205-225.
- 이재석 · 이충기(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스키리조트 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호텔관광연구*, 12(4), 1-19.
- 이현중 · 오민재(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축제 방문객 행동의도 분석. *한국관광레저학회*, 28(12), 301-319.
- 이후석 · 오민재(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부산국제영화제 방문객의 행동의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30(8), 91-104.
- 임희량 · 김학선(2016).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한 친환경산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9(1), 201-221.
- 정재선(2013). 세대와 흡연특성이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8(8), 1-39.
- 제미경 · 전향란(2013).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 불매운동 유형별 분석. *소비자문화연구*, 16(4), 191-213.
- 조한범 · 노도현 · 김미향(2017). 수상스키 참여자의 여가관여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1), 443-462.
- 차동필(2005). 폭음행동 이해. *한국언론학회*, 49(3), 346-372.
- 최영정(2009).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용훈(2007).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관광객 유형과 관광객 국적별 비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arts, V., Verplanken, B., & Knippenberg, A.(1998). Predicting behavior from actions in the past: repeated decision making or a matter of habi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15), 1355-137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Ajzen, I.(201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reactions and reflections. *Psychology & Health*, 26(9), 1113-1127.
- Ajzen, I., & Driver, B. L.(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07-224.
- Ajzen, I. & Fishbein, M.(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The Handbook of Attitudes*, 173-221.
- Branley, D. B., & Covey, J.(2018). Risky behavior via social media: the role of reasoned and social reactive pathway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8, 183-191.
- Chen, M. F., & Tung, P. T.(2014). Develop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to predict consumers: intention to visit green hotel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6, 221-230.
- Cooke, R., Sniehotta, F., & Schuz, B.(2007). Predicting binge-drinking behaviour using an extended TPB: examining the impact of anticipated regret and descriptive norms. *Alcohol & Alcoholism*, 42(2), 84-91.
- Demir, B., Ozkan, T., & Demir, S.(2019). Pedestrian violations: reasoned or social reactive? compar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rototype willingness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60, 560-572.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ogarty, G. J., & Shaw, A.(2010). Safety climat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wards the prediction of unsafe behavior.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2(5), 1455-1459.
- Hagger, M., Polet, J., & Lintunen, T.(2018).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to health behavior. *Social Science & Medicine*, 213, 85-94.
- Han, H., Hsu, L. T. J., & Sheu, C.(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3), 325-334.
- Kim, S. H., Kim, S., Huh, C., & Knutson, B.(2010). A predictive model of behavioral intention to spa visit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CHRIE Conference*.
- Miesen, H. W. J. M.(2003). Predicting and explaining literary reading: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etics: Journal of Empirical Research on Literature, the Media and the Arts*, 31(3-4), 189-212.
- Pannilage, S. U., & Lin, Y.(201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context of wine festival attendees. *TTRA International Conference*.
- Phillips, W. J.(2009). *Senior casino motivation and gaming intention: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nhattan, Kansas: Kansas State University*.
- Procter, L., Angus, D., Blaszczynski, A., & Gainsbury, S.(2019). Understanding use of consumer protection tools among Internet gambling customers. *Addictive behaviors*, 90, 106050.
- Untaru, E., Ispas, A., Candrea, A., & Luca, M.(2016). Predictors of individuals'intention to conserve water in a lodging context: the application of an extended theory of reasoned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59, 50-59.
- Wu, K. S., & Teng, Y. M.(2011). Apply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the intention of visiting a green hotel.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17), 7579-7587.